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30주일

2024년 10월 27일 / 제661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용재 제2독서 안희재 / 입당 26 봉헌 215, 510 성체 175, 154 파견 421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Sylvia Sicut 2nd Reader Aiden Jung

입당 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예레 31,7-9

화답 송 | 시편 126(125),1-2ㄱ-2ㄷ-3.4-5.6(◎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

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히브 5,1-6

복음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 마르 10,46-52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0월 27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니, 살면서 피하고픈 참 아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애달픈 자비보다는 당당한 거래, 다른 이의 처분에 매달리는 비루한 삶 대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남의 처분이 아니라, 내 요청이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와중에 들이닥치는 가난은 곤란합니다. 오늘 복음 속 바르티매오처럼 내놓을 게 없는 가난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비에 기대어 외칠 뿐입니다. 천덕꾸러기. 사람들은 눈치를 줍니다. 세상이 이런 이들에게 기대하는 미덕이란 잠자코 사는 것. 소리 지르는 그에게 '많은 이가 잠자코 있으라 꾸짖습니다.'(마르 10,48 참조)

다행일까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청이 있을 때 그저 자비에 기대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 입학, 취직, 결혼, 삶의 갈피마다 주님 앞에 가져갈 청이 있고, 우리의 청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봉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좀 내놓은 뒤, 고개를 들고 우리의 바람을 아웁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봉헌하오니 이번 일은 좀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침묵. 자비로운 주님, 우릴 사랑한다는 그분의 응답이 너무 자주, 너무 느리고,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보다는 억울함을, 감사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 십상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잠자코 계시렵니까? 제가 뭘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복음이 이 오래된 물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픈 것은 오직 하나, 바르티매오의 가난한 외침이라는 응답. 봉헌할 게 없는 그에게 세상이 한목소리로 으박지르고, 그 역시

이제 잠자코 무너져버리고 싶지만 거슬러 일어난 외침,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의 외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 거래할 것도 없던 그에게 주님의 자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향한 비루한 외침이 주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적은 그저 한 부분, 복음은 길을 모르던 그가 길을 찾았다는 깊고 긴 삶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 던지고"(마르 10,50) 다가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마르 10,52 참조) 구원의 기적이 외침에 이어진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은 세상을 거슬러 일어서는 마음뿐. '당신이 남아있습니다. 제게 당신이 있으니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래를 멈추어야 하는 막다른 가난이 복된 은총이라고, 주님만 남은 우리의 가난이 맑고 투명한 눈이 되어 길을 보게 해주리라고 바르티매오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이에게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자비라고 온 마음으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배고픔, 당신의 응답이 오히려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곁에서 참 오래오래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근상 시몬 신부 | 예수회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동증조절, 체질과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어떤 신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혼자 ‘아멘’ 이라고 해서 엄청 창피했어요.” 그런데 왜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는 ‘아멘’ 이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 때 왜 주님의 기도를 바치나요?

사실 주님의 기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전례나 개인 기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신자는 일상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세 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주님의 기도가 미사 전례 안에 차츰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과 관련하여 교회의 교부들은 무엇보다 성체와 연결시켜 이 양식의 의미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 기도로 여겨지게 되었고, 4세기경 동·서방 전례에 모두 도입됩니다. 그래서 가령 테르툴리아누스 성인(Tertullianus, 155~240)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간청을 영성적으로 알아들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구절과 연관해서입니다. ‘죄의 용서’는 무엇보다 합당한 영성체를 위한 훌륭한 간구로 여겨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우구스티누스 성인(Augustinus, 354~430)은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사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욕은 고해성사와 연관되어 우리 죄를 씻는 것이며, 얼굴을 씻는 것은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용서를 청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일상의 잘못을 씻고 비로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기도로서 영성체를 준비하고,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사 때 바치는 주님의 기도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사제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내용과 신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제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그리고 모든 시련에서의 보호와 복된 희망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정성되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하나비 스시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11월 4일(월) - 15일(금):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 없음)
- 11월 10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이날 미사는 산호세 본당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할로윈 이벤트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체육관
- 내용: 코스튬 퍼레이드, 게임 등의 할로윈 액티비티
- 대상: 주일학교 학생(K 미만의 어린이들의 참여도 환영)

2024 성모회 총회

- 일시·장소: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40분 · Room A
- 대상: 성모 회원 및 예비 회원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미주 가톨릭 성서모임 주관 "말씀의 초막절에 초대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 4시: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 강의
-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홍신부와의 만남의 시간(질의 응답 시간)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주간 나눔 예절(때제기도)
- 북가주와 캐나다 신자들은 행사 중 강의 부분만 비대면(Zoom)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 후 안내 데스크에서 해드립니다.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 기간: 2024년 11월 4일(월) - 15일(금)
- 참석 인원: 32명(본당 신부님 포함)
-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이 성모 발현지인 루르드와 파티마를 순례합니다. 순례단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교우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마태 5	10/26(토) 8:00PM	Room A	949 838 5041
------	-----------------	--------	--------------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16.15	\$447	\$1620	\$90	\$130	\$3703.1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0), 박일신(10-12), 박주암(10), 유창수(9,10), 윤혜숙(9,10), 이연호(11,12),이예진(8,9), 홍석제(10)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0), 박일신(10-12), 홍석제(10)

Bishop's Appeal

김성치(10), 박일신(10-12), 홍석제(10)

건축봉헌금 바자회 수익금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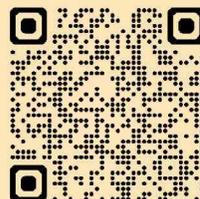
공동 사명

For a shared mission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Church continue to sustain in all ways a Synodal lifestyle, as a sign of co-responsibility, promoting the participation, the communion and the mission shared among priests, religious and lay people.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